

조선후기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와 향유문화적 의미*

최형우*

|| 차례 ||

- I. 서론
- II. 불교의 여성 인식과 조선후기 여성의 신행 활동
- III.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
- IV. 불교가사 ‘여성 형상화’의 향유문화적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한 사회에서 유행하는 특정 종교는 그 사회의 특성이나 기본적인 구성원의 인식을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하나의 종교가 다른 사회로 유입되어 그곳에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특성의 반영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각종 사회, 문화적 활동들 속에는 그것을 유지, 존속시키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현대까지 끊임없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불교 사찰의 문화적 활동 사례인 ‘불교가사’에 ‘여성’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 사회에서 불교의 논리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경 및 불서에도 이러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불교가사 역시 기본적으로 포

* 본 논문은 2019년 12월 14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민족어문학회 제329차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수정·보완에 크게 도움을 주신 토론자 부산외대 류명옥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교 등의 목적을 위해 불서의 내용을 담아 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으며, 여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19세기로 접어들며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회심곡> 사설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회심가> 사설에서는 ‘여성’을 중요한 향유의 대상으로 다루고, 남성과 대등한 차원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 사찰에서 여성의 역할과 문화적 역량은 상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시대적으로 여성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불교의 세를 유지하고, 문화적 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성’에 대하여 재인식하며, 그것을 문화 활동으로 다시 반영하는 모습을 조선 후기 불교가사 사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불교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형상화’의 모습이 달라지는 현상은 20세기 초반 불교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던 여성 담론의 전개와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주제어: 여성(Female), 여성 담론(Female discourse), 불교가사(Buddist Gasa), 사찰 구성원(Temple members), 회심곡(Whoeshimgok(回心曲))

I. 서론

조선 사회에서 불교의 논리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과 깊이 관련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불교와 ‘여성’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많은 여성 신도들은 불사에 참여하거나 시주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고, 사찰은 여성 신도, 후원자들을 배제하고는 사찰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였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형성된 불경을 한역한 한역본을 다시 수입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도 사회와 중국 사회에서 전개된 불교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¹⁾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 즉, 인도 사회와 중국 사회에서 생각하였던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불경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불교가 모든 측면에서 인도나 중국 사회의 인식들을 받아들이기만 하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들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여야 했던, 당대의 모든 종교들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그 속에는 불경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물론,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기호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사’ 사설에는 전통적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가졌

1) 불교는 고타마 싯다르타(Gotama Sidhartha)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이며, B.C.500년 대부터 교리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의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각지로 전파되는데, 힌두교 중심의 인식론에 반하여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파된다.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150년대 정도부터인데, 부처 생존시대로부터 400-500년 동안 인도에서 전승되었던 불교는 이미 여러 부파로 나뉘어진 상황이었고, 각 부파별로 여러 경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를 전승시키던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지루가찰, 축법호, 구마라습, 현장 등에 의해 여러 경전들이 한역되면서 중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으며, 한역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여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화가 이루어졌다. 한반도는 이후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경전을 수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 중국의 사회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던 여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흐름과 사회 구성원들이 가졌던 ‘여성 인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가사 사설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불교가 종교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표현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주도적 활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불교의 교리와 전통적인 인식을 주목하였다.²⁾ 또한 주로 조선시대 불교의 문화 활동 가운데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거나, 불교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오해를 초기 경전의 내용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³⁾ 이러한 시도는

2) 최근의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아래와 같다.

안옥선, 「초기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철학』제53집, 한국철학회, 1997, pp.71-104.

하정남,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 『불교학연구』제2집, 불교학연구회, 2001, pp.105-149.

구자상, 「불교의 인간론에서 본 석존의 여성관」, 『정도학연구』제7집, 한국정도학회, 2004, pp.201-233.

안옥선,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 『동서 비교문학저널』제6집,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2, pp.115-130.

이수창, 「불교의 여성성불론에 대한 검토」, 『한국불교학』제48집, 한국불교학회, 2007, pp.7-34.

윤종갑, 「불교에서 평등과 차별」, 『동아시아불교문화』제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179-211.

조승미,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뷰」, 『불교학 리뷰』제9집,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249-263.

안상희,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불교페미니즘 연구」, 위덕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 2012, pp.47-67.

조승미, 「한국의 불교와 여성 연구: 회고와 전망」, 『한국불교학』제68집, 한국불교학회, 2013, pp.707-750.

옥복연, 「한국불교 조계종단 중법의 성차별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pp.1-336.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오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 생겨난 것인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를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조금 더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본고는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당대의 ‘여성 인식’을 확인하고, 그것에 담겨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교가사는 18-20세기, 즉 조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대중들에게 폭넓게 유행한 불교문화 활동의 결과물이다.⁵⁾ 이러한 시기에 대한, 그리고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당대의 ‘여성 인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사찰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물론, 문화의 발전적 전개 속에서 다양한

3) 이현옥, 「불교에서 여성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 『불교어문논집』제8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3, pp.5-29.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한국여성학』제31집(1), 한국여성학회, 2015, pp.95-121.

옥복연, 「붓다의 십대 재가여성제자에 대한 불교여성주의적 분석」, 『한국불교학』제74집, (사)한국불교학회, 2015, pp.319-348.

4) 불교와 페미니즘을 연결시켜 여성혐오, 혹은 여성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근거로 드는 것이 결국, 불교의 초기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서술들이다. 이 선행연구들이 논의한 바대로 전통적인 인도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불교의 기본 논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초기 경전의 서술들을 통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초기 경전을 근거로 한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18-20세기는 이전 시기 전란으로 인해 훼손된 사찰을 복원하고, 확장하는 불사가 전국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불사활동은 법당의 복구 및 개창, 불상의 개금 및 안치, 불화 및 불구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결국 당시 사찰 구성원들이 가지는 문화적 역량을 담아내는 문화 활동이었으며, 불교가사는 이러한 불사의 진행이나 의례의 진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다.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대 ‘여성’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불교의 여성 인식과 조선조 여성의 신행 활동

사찰 구성원⁶⁾들이 가졌던 여성 인식과 그 표현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본래 불교라는 종교가 가진 인식에 대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발전한 불교는 인도에서 형성, 발전하여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다시 한반도로 전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식에 대해서는 인도 사회의, 또 중국 사회의 의식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전개된 불교를 통하여 이것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본 논의의 초점에도 맞지 않다.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유통된 불경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대적, 환경적 특수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종교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유입되어 정착,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그곳의 환경과 구성원들의 특성, 사회 구조 등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조선시대 사찰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형태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

6) 필자가 사용한 ‘사찰구성원’이라는 용어는 승려, 불자, 신도 등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사찰에서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의례나 불사, 사회적 활동은 승려 집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사찰과 관련된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최형우, 「20세기 초 범어사의 사회적 활동과 『권왕문』 향유의 문화적 의미」, 『어문론총』제8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p.115.

찰에서 ‘여성’은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따라서 불경에서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별개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찰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먼저 불서에서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불서에 언급된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논의들을 통하여 몇 차례 주목받았다.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현세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전생에 지은 악업이나 부족한 공덕의 결과라는 식으로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진짜이든 오해이든 간에 이러한 인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초기 경전의 해당 내용을 통해 이러한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인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옛날에 도를 깨치려고 하였을 때) 애착과 혐오와 탐욕(이라는 세 마녀)를 보고도 그들과 성의 교접을 행하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소변이 가득찬 (여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 여자들에게 발이 닿는 것조차 바라지 않았다.(부처님이 사야뵈티이에 계실 때 바라문인 마야간디야가 그의 딸들을 성장시켜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아내로 삼아달라고 하였을 때 하신 말씀)⁷⁾

초기 경전 『숫타니파아타』의 예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서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전의 서술이 여자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색욕’에 대한 경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⁸⁾ 하지만 이 구절이 남성 화자인 석가모니 부처에 의해 남성 청자인 마야간디야를 대상으로 표현된 것은 확실하며, 이러한 틀로 인하여

7) 김운학 역, 『숫타니파아타』, 범우사, 1980, p.159.

8)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한국여성학』 제31집(1), 한국여성학회, 2015, p.107 참조.

남성 중심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후 전승자들의 해석에 따라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여지를 두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 석가모니는 당시 인도 사회의 통념이었던 ‘여성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특히, 당시 힌두 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사회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악업과 부족한 공덕의 결과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세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여 좋은 아내가 되고, 내생에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⁹⁾ 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형태로 ‘업’의 문제를 풀어 내며 논리를 펼쳤다. ‘업’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퍼져 있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초기 불경은 곳곳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담고 있다. 아래와 같은 경전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¹⁰⁾

(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오직 네 가지 만을 제하고 그 나머지는 일체와 평등하여 구별이 없으니, 그 첫째는 수(壽)이며, 둘째는 성(姓)이며, 셋째는 명(名)이며, 넷째는 신(身)이다. **보살은 결코 여자의 몸으로는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 어째서인가? 보살마하살은 이미 첫[初] 이승기겁에 여자 몸 되는 것을 끊었기 때문이다. 여자의 몸은 탐욕이 많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혜[二指智]이므로 이러한 악지(惡智)로는 아늑다라삼막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

- 『보살선계경』¹¹⁾

9) 김한상,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태어남과 업」, 『불교학연구』제53집, 불교학연구회, 2017, p.237 참조.

10) 아래 세 경전의 내용은 “한글대장경”(https://abc.dongguk.edu/ebti/c2/sub1.jsp)에서 발췌하였다.

11) 5세기 중엽 인도 출신 승려 구나발마가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보살이 행해야

(나) 만약 선남자·선여인이 이 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반드시 앞으로 큰 열반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있어 이 광명취여래의 이름을 들으면 마땅히 여자의 몸을 바꿀 것이며, 수명을 마칠 때 의심과 혼란이 없고,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 『보살장경』¹²⁾

(다) 제 생각으로는 저는 복이 적어 이렇게 여자의 몸을 받았고, 마음과 몸에는 더러운 때[垢]가 밤·낮으로 산처럼 쌓였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목숨은 짧고 급박하여, 죽은 뒤에는 세 갈래 나쁜 길[三塗]에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달마다 부처님 법의 재를 받들어, 애욕을 끊고 도를 따름으로써 태어나는 세상마다 복을 받으려 합니다.“

- 『법구비유경』¹³⁾

위의 여러 경전의 인용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남성’을 우위에 두고, ‘여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에서 보살은 절대로 여자의 몸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구절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여성 혐오’ 논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나) 역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여성의 몸을 바꾸고, 다시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해 여자의 몸으로는 성불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다)에서와 같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포함한 ‘여성’에 대하여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여러 경전에서의 부정적 여성 인식은 결국, 초기 경전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인도, 중국

할 각종 계율을 설명하고, 그 계율을 지키는 보살들이 받을 수 있는 복덕에 대해 설한 내용이다.

12) 6세기 초 부남국(현재 캄보디아 지역) 출신 승려 승가바라가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보살의 참회 내용을 설한 내용이다.

13) 4세기 초 중국 승려 범거, 범립이 한역한 경전이다. 이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구, 신자를 위해 설한 각종 설법 내용을 모아놓은 내용이다.

사회의 인식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 역시 주나라 이후 가장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며,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종속적이며, 그 생활영역이 가정이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주로 나타난다.¹⁴⁾ 이러한 중국 사회의 의식은 중국으로 유입되어 유행한 불교의 교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한반도의 고대, 중세 역시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불교 경전이 유통되면서, 사찰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넘어서기 힘들었다. 하지만, 사찰의 구조와 운영에 있어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사찰 공간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컸다. 특히, 조선이 건국된 이후 국가의 지배 이념이 성리학으로 바뀌면서, 불교 사찰은 주요 구성원의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사찰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구성원으로 ‘여성’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 전기 왕실과 사대부가의 지배층 여성들은 사찰의 여러 불사를 후원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1395년(태조 4) 영덕 장륙사의 <乾漆觀音菩薩坐像>이 조성되어 이후 1407년 개금된 불사에 丹陽郡夫人 朴氏, 玉泉郡夫人 全氏, 開城郡夫人 王氏, 密陽郡夫人 朴口 등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후원자로 참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¹⁵⁾ 그 이후 조선시대 내내 큰 불사에는 많

14) 윤제석, 「중국고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내지위」, 『동양사학연구』제96집, 동양사학회, 2006, p.32 참조.

15) 강희정, 「조선 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제41집,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02, pp.272-275 참조.

은 여성들이 후원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지배층 여성은 사찰에서 진행되는 각종 불사에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¹⁶⁾

이뿐만 아니라 왕실을 중심으로 여성이 출가를 통하여 보다 중요한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정업원'의 존재가 이를 증명한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던 비구니 사찰인 정업원은 1448년(세종 30) 폐지되었다가 1459년 다시 중창되었고, 이후 1505년(연산군 11) 다시 혁파, 1550년(명종 5) 다시 운영되는 등 폐지와 운영이 반복되었다. 1612년(선조 40) 완전히 폐지되어 다시 복원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으며, 사찰 구성원으로서 왕실의 여성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조 내내 사찰의 운영에 있어 '여성'은 상당히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불교 자체의 논리 외에 사회적으로도 불교 사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주도적이었다.

근년 이래로 氣習이 날로 변하여서 여승의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궁벽한 민간과 비밀스러운 땅의 곳곳에 모두 社堂이 있어서 무리들을 굶어모아 초유를 널리 행하니 失行한 처녀들과 지아비를 저버린 사납고 모진 妻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薦導 하느니 명복을 비스니 하면서 屏계대어 머리를 **까고 절에 몰래 투신하는 자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공평하게 상고하건대, 성심껏 佛道에 향하는 자는 대개 백 사람에게 한두 사람도

16) 조선시대 내내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행해졌던 각종 불사에는 대부분 여성 후원자가 존재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무너진 사찰을 복구하고, 다시 세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성 후원자는 전국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이미 사찰의 건축, 불상, 탕화 등을 조사한 논의들에서 산발적이지만 다양하게 언급되었으며,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전제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니되며, 예법의 禁防에서 뛰어나가서 질실하게 자기 마음대로 음행을 하고 자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婦人들이 거처하는 집은 閭閻이 좌우에 있고, 노비가 앞뒤에 있으며, 僧俗 이 복장을 달리 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록 情慾을 마음대로 풀어보고자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목이 이미 널리 있어서 형세상 또한 행하기가 어렵지만, 집을 나가면 중과 여승이 일체이고 복색이 서로 뒤섞여서 奴僕을 물리치고 친척과 絶緣하며, 출입에 방해되는 것이 없으므로, 그 형세가 전일에 비하여 여찌 만배나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부녀자 가운데 보잘것없이 추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심복들과 결탁하고, 혹은 점등한다고 일컫고, 혹은 천도한다고 일컬으며, 혹은 변경한다고 일컬으며, 사찰을 두루 돌아다니며 열흘씩이나 유숙하고 방탕하면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니, 음행을 저질러 추악하고 더러운 소문이 자자하여 높이 귀에 들립니다.¹⁷⁾

위의 사례를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시의 여성들이 ‘점등’, ‘천도’, ‘변경’ 등을 이유로 사찰을 방문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법당 건축, 불상 개금, 경전 번역 등 각종 불사의 후원자로서 역할 이외에도 천도, 점등 등과 같은 불사가 운영되는데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 활동에 여성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위인용의 주된 논지는 당시 여성들이 사찰에 드나드는 것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다. 사대부 관료들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사찰에 드나드는 것을 성적 일탈(음행)과 관련지어 비판하였다.¹⁸⁾ 이것은 사대부 관료들

17) 『성종실록』 권32, 4년 7월 정미, “近年以來, 氣習日變, 尼徒漸多, 窮閭密地, 處處皆有社堂, 聚集徒侶, 廣行招誘, 爲失行處女·背夫悍妻之淵藪. 無行寡婦, 夫屍未冷, 托薦冥福, 而剃髮暗投者, 不知其幾. 夷考其行, 誠心向道者, 百無一二, 跳出禮防, 切切焉肆意於宣淫耳. 何者, 婦人之處家, 閭閻在左右, 奴婢居前後, 僧俗異服, 出入有禁, 雖欲縱情恣欲, 耳目既廣, 勢亦難行, 出家則僧尼一體, 服色相混, 攘斥婢僕, 頓絕親戚, 出入無防, 其勢視前日, 豈不萬萬易哉? 婦女之無狀醜行者, 結爲腹心, 或稱點燈, 或稱薦導, 或稱齣經, 遊遍寺刹, 旬日留宿, 蕩而忘返, 縱淫醜穢之聲, 騰聞滔滔.”

18) 강명관,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제26집(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pp.118-120 참조.

이 당시의 사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아울러 굳이 여성의 사찰 방문을 예로 들어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대부 관료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여성이 사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성’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의식을 담은 불서들이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여성들의 사찰 신행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찰 역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기존의 교리 내용을 그대로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불교가사는 결국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근본적인 목적을 둔 문화 활동이다. 즉, 경전으로 유통되던 여러 교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시 사찰 문화권의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이다.

Ⅲ.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

불교가사는 조선 후기 불교의 대중적 영향력 강화와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만든 포교를 위한 문학 작품으로, 불교의 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대중적 문학 양식인 가사에 엮어 부른 것이다. 불교가사의 출발을 고려 말로 설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¹⁹⁾ 문화적으로 볼 때, 현재 남아 전하는 형태의 불교가사는 17세기 말 침평의 작품군 이후에 사설

19) 18세기 간행된 불서에 <서왕가>의 작자를 ‘나옹화상’으로 표기하였으며, 이후 <승원가>, <발원가> 등 여러 사설의 작자가 ‘나옹화상’으로 표기된 것에서부터 이러한 논의가 출발하였다.

이 형성되어 유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²⁰⁾ 즉, 불교가사에 형상화되어 있는 ‘여성’의 모습은 곧 조선 후기 사찰 구성원들의 여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은 사설의 계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당시 유통되던 불전에 형상화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이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형시킨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당시 사찰 구성원이었던 여성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문학 향유에 있어서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불교가사 사설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작품 계열을 중심으로 다소 거칠기는 하나 시대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불교가사 전체적인 경향을 따져보면, 분명히 사설의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주로 남성이다. <회심곡> 계열이나 <몽환가> 사설, <백발가> 계열 등 많은 가사 사설은 화자인 ‘선각자’가 남성 청자에게 설법을 전하는 방식이다.²¹⁾ 이러한 방식은 대체로 범부인 청자의 ‘꿈로 가득찬 삶’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화자의 기본적인 시각은 사찰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과는 다르게, 열악하였던 당시 여성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동양 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던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불교가사 사설에 반영된

20)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6, pp.13-16 참조.

21) 예를 들어 <회심곡> 계열 사설인 <감사별곡>의 경우 화자가 상정하고 있는 청자의 성별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슬름업시 누어시니 병은점점 기퍼갈제 / 일가친척 절문처자 좌우에 늘어안져”, “북망산천 도라들제 절문애첩 거동보소”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 이 사설의 대상이 되는 범부가 ‘남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불교가사 사설들은 이와같이 남성 청자를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가사 사설 가운데, ‘여성’을 객체화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객체화된 여성 형상화는 보다 분명하게 불교가사의 연행 및 향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여성 형상화는 뚜렷하게 하나의 흐름으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형태이다. 아래의 각 절에서는 각각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부정적 여성 인식의 형상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조선조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널리 유통되었다. 불교가사는 기본적으로 불법과 교리를 교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불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반영의 대상이었다. 아래의 사설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가) 금싱녀신 득흔사름 전싱죄로 나와시니
음해사십 다바리고 즈비선심 넘불흐면
마야부인 부러흐니 팔세용녀 이아닌가²²⁾

(나) 여자몸을 바든사람 전생죄악 만사오니
음해사십 다바리고 자비선심 엇불하면
석가여래 부러흐며 아미타불 부러흐리²³⁾

22) 『염불보권문』 <회심가> 제183-188구.

23) 작자미상, <권불가> 제153구-158구.

위 (가)는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후 18세기 내내 전국 각지에서 중간된 『염불보권문』에 실린 <회심가> 사설이다.²⁴⁾ 이 사설은 청허 휴정(1520-1604)이 창작한 것으로 전승되었으며,²⁵⁾ 세상사 허망함을 깨닫고,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불교 가사 사설은 사설 내의 화자나 청자를 ‘남성’으로 설정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통된 불경들에서 형상화해놓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회심가> 외에도 지형²⁶⁾의 <권선곡>에서도 ‘스후보응 밧스옴이 삼싱기녀 구세우로 / 턴벌을 쏘입엇고’와 같은 구절에서처럼 현세의 과오로 인하여 다음 생애 ‘기녀(여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

(나)는 1887년 필사본 『불교가사』에 실려 있는 사설이다. 내용상 <회심

24) 『염불보권문』은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명연(?-?)에 의해 간행된 이후 18세기에만 수차례 다른 사찰에서 중간되었으며, 내용 역시 본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회심가>가 실려 있는 본은 1764년 팔공산 동화사본, 1765년 영변 용문사본, 1776년 합천 해인사본, 1776년 합천 해인사 『신편보권문』, 1787년 고창 선운사본이다. 최형우,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제6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 p.183 참조.

25) 『염불보권문』에 실린 <회심가> 사설은 작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1776년 해인사에서 호은유기(1707-1785)에 의해 간행된 『신편보권문』에 작자를 ‘청허존자’로 기록하고 있다. 『신편보권문』은 『염불보권문』의 속편 격으로 기존의 염불문들을 일부 삭제하거나 축약하고, 새로운 염불문을 추가하는 등 새롭게 내용을 구성하였다(최형우, 「<서왕가> 사설의 전승과 향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pp.295-296; _____,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제6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 p.179 참조).

26) 인혜신사 지형은 1795년에서 1797년 사이 불암사에서 많은 경전의 판각을 주도하였다. 이때 판각한 책은 경전뿐만 아니라 위경과 도가류의 서적까지도 포함되어 있다.(임기중, 2000) 이러한 많은 전적 간행 불사와 지형이 창작한 가사 <전설인곡>, <권선곡>, <수선곡>, <참선곡>, <마설가> 등의 작품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사설에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9세기 유행한 사설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 사설에서 역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전생의 죄악 때문인 것’으로 서술하여 (가)와 동일한 ‘여성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 사설은 (가) 사설과 동일한 의미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에서 ‘마야부인’, ‘팔세용녀’ 부분이 각각 ‘석가여래’, ‘아미타불’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8세기 사설에서 ‘여성’의 성불이 불경에 제시된 ‘여성’의 차원에 그쳤다면, 19세기 사설에서는 적어도 석가여래, 아미타불과 동등한 차원으로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형태이다.

또 당시 사회적으로 강요받던 관습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상화된 사례도 발견된다.

부자유친 천륜이나 송사하기 일을삼고
 부부유별 디륜이나 이혼함을 예사알고
 형제일신 지정이나 투쟁하기 무삼일고
 더군다나 여자행동 한심하고 가련하다
 시부모가 무엇인지 아난그이 자식이라
 시절이야 다러지만 미성년전 처녀로서
 몽동초마 쓸처입고 발가버신 몸동아리
 동을보고 다리딜고 서로보고 풀적쫓며
 남을향히 춤을추고 북을보고 손을긋터
 머리털을 살펴보니 원승이이 디구리오
 낮짝이를 바티보니 구미호가 화한듯다

27) 임기중은 이 사설이 18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설은 1887년 필사본 『불교가사』에 수록된 것으로 18세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다른 <회심곡>류 사설들이 19세기에 기록된 사설로 볼 때, 이 사설 역시 19세기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p.114 참조.

그런중이 다투고 동등권을 부러지니
 업지쪽이 박구워서 양달쪽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쌍이되고 쌍이하날 된단말은
 틱극조판 이후로서 듯도보도 못한바라
 민귀신명 자조울면 국가유우 한다하고
 여자음성 놓하지면 가정불화 아니른기²⁸⁾

위의 예시는 19세기 1887년 필사본 『불교가사』에 실려 있는 <광제가> 사설이다. 위 사설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자유친’, ‘부부유별’ 등의 키워드는 당대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습적으로 수용되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당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전형적인 근거를 내세워 전통 사회에서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관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던 불교가사 사설이 19세기까지 관습적, 강압적으로 전승되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남성과 대등한 위치의 여성 형상화

19세기에 유행한 불교가사 가운데, 앞서 살펴본 부정적 여성 인식의 형상화와는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사회적으로 널리 유행하여 이후 ‘불교가사’를 대표하는 사설로 발전한 <회심곡> 계열의 사설이 그것이다.²⁹⁾ <회심곡>은 인과적 구성 방식으로 구성된 사설로³⁰⁾ 현재까지 사

28) 작자미상, <광제가> 제103-134구.

29) <회심곡>은 현재 화청의 형태로 연행되는 불교가사의 대표적인 사설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간행, 혹은 필사된 연대는 대부분 19세기 이후로 19세기 이전에 이 사설이 존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18세기 『염불보권문』에 실려 있는 <인과문> 사설은 <회심곡>과 상당히 닮아있으며, 18세기 <인과문> 사설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19세기 <회심곡> 사설이 형성, 유통되면서 그것을 대신하

찰의 재의식에서 ‘화청’의 형태로 연행되기도 하고, 인접 분야와의 영향 관계 속에 민요, 무가로도 연행되고 있는 사설이다.³¹⁾ 이 사설에서는 보다 남성과 대등한 위치로 묘사된 ‘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죄인 잡아들여 엄형국문 하난말이
 너에죄목 들어바라 시부모와 친부모께
 지성효도 하였느냐 동생항열 우애하며
 친척화목 하였느냐 괴악하고 간특한년
 부모말삼 거역하고 동생간에 이간하고
 형제불목 하계하며 세상간악 다부리며
 열두시로 마음변화 못듯는데 욕을하고
 마조안저 우습낙담 군말하고 성내는년
 남의말을 일삼는년 시귀하기 조와한년
 풍도옥에 가두리라 죄목을 무른후에
 온갖형벌 하는구나 죄지경중 가리여서
 차례대로 처벌할제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발설지옥 아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야 모든죄인 처벌한후

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심곡> 계열의 사설은 원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대인 19세기에 유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형우, 「불교가사 <인과문>의 사설 구성 방식과 연행문화적 의미」, 『어문학』제144집, 한국어문화회, 2019, p.181 참조.

30) 인과적 사설 구성 방식은 윤회전생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간 개념과 관련된 인과적 순차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설 구성 방식이다. 특히 ‘생-로-병-사’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설을 순차적으로 연결시키고, 차원을 달리하여 대중구제와 관련된 ‘생’으로 다시 회귀하는 구조이다.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6, pp.100-101 참조.

31) 남성과 대등한 위치의 여성 형상화 사례는 <회심곡> 사설 외에 다른 사설들에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회심곡> 사설은 불교가사를 대표한다고 할 만큼 널리 향유되었던 사설이다. 현재까지 전승되어 오는 무가 <혜심곡>이나 민요 <회심곡>의 사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심곡> 사설의 향유 정황을 통해 이 사설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식’의 변화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연을 배설하고 착한여자 불러들여
 공경하며 하는말이 소원대로 다일너라
 선녀되어 가라느냐 요지연에 가라느냐
 남자되어 가라느냐 재상부인 되라느냐
 제실황후 되라느냐 제후왕비 되라느냐
 부귀공명 하라느냐 네 원대로 하여주마
 소회대로 다일러라 선녀불러 분부하야
 극락으로 가게하니 그아니 조홀손가³²⁾

위 인용 사설은 <회심곡> 계열 사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이 사설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과 연결된 앞 사설에서는 ‘남성 죄인’의 심판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와 대등한 차원에서 ‘여성 죄인’의 심판 과정에 대한 서술을 병렬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사설과는 다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사설의 예상 청자로 ‘여성’을 중요하게 주목하였으며, ‘여성의 심판과 왕생’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보다 동등한 위치의 ‘여성’을 강조한 것이다. <회심곡> 계열 사설은 대체로 유사한 사설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본들에서 이와 같은 사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공덕 사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묘사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교가사 사설이 대체로 남성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사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예상 청자의 차원에서도 ‘여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2) 작자미상, <별회심곡> 제245-288구.

연하대에 탄생키로 일념으로 기다리며
 일심으로 염불하소 병이만일 중하여도
 귀신에게 비지마소 수명장단 정한것을
 저근귀신 잊지할까 장병잇든 풍부인은
 염불하고 병나으며 눈어둡든 장씨녀는
 염불하고 눈뺏스니 나의정성 지극하면
 이런효험 안이불까³³⁾

위 사설은 1935년 간행된 안진호의 『석문의범』에 실려 있는 <몽환가> 사설이다. 『석문의범』이 간행된 시기는 일차적으로 당시까지 유행하던 불교가사 사설이 정리되던 시점이었으며, 이 책에 가사 사설이 실렸다는 것은 불교가사 향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나, 당대까지 상당히 유행하던 사설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몽환가> 계열 사설은 19세기 이후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다른 가사 사설에도 다양하게 삽입되기도 하였다. 위의 예시와 같이 <몽환가> 사설에서는 염불공덕을 쌓은 여성의 사례를 삽입하여, 사설 향유자 ‘여성’을 주목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극락왕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현세에서 복덕을 받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향유자 ‘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처럼 불교가사에 형상화된 ‘여성’은 중국을 통해 유입된 불서의 여성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보다 전면에 내세우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저에 두고 사설을 구성, 향유하면서도 사찰의 주요 구성원이자 문화 활동의 후원자, 참여자였던 ‘여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3) 『석문의범』, <몽환가> 제231-243구.

IV. 불교가사 ‘여성 형상화’의 문화적 의미

불교 사찰에서 ‘여성’은 조선시대 내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불교가사 유통 및 향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불교의 문화 활동 가운데 ‘여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매우 통제적이었던 조선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임이 틀림없다. 아울러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불교 사찰의 움직임은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불교가사의 ‘여성 형상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흐름과 그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유통 및 향유된 사항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가사가 본격적으로 유통, 향유되었던 18-19세기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종교들이 유입되거나 발생하고,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관들이 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불교가사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여성은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사설의 유행이 사찰 구성원들이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특히 불교가사는 사찰 공간에서 의례, 천도의식, 신행활동, 모연활동 등 다양한 활동 가운데 연행되었다.³⁴⁾ 이러한 문화 활동들에서 ‘여성의 참여’는 빼질 수 없었으며, 사찰의 의례나 의식을 주도하는 계층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여러 불사의 시주자, 참여자 명단 외에

34) 최형우,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6, pp.36-56 참조.

는 구체적인 여성의 참여 및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유행하던 여러 문학 작품에서 여러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씨는 불상을 우러러 보았다. 외딴 섬의 대숲은 완전히 암자와 같았다. 찬문에서 이른바 보살을 칭송한 것도 정녕 사씨의 신세를 표현한 것과 같았다. 사씨는 탄식하며 말하였다.(중략) 사씨는 매일 향을 피우고 기원하였다. 그 기원은 오직 ‘한림이 마음을 돌리고, 인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³⁵⁾

고전소설 <사씨남정기>의 사씨는 ‘수월암’에서 분향하고 발원한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한림이 마음을 돌리고, 인아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소위 기복적인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많은 여성들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사찰을 찾았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문학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듯 고전소설 속에서 여성에게 불교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억압적 세계로부터 도피시키거나 세계를 향한 재진입의 발판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³⁶⁾ <정현무전> 같은 작품에서도 정현무가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축수하고자 ‘관음사’를 찾는 등³⁷⁾ 각종 불교의 문화 활동의 연결지점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각종 불사의 후원자 사례를 통해 살펴보다라도 여성 후원자의 규모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불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불자 및 대중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연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³⁸⁾ 이러

35) 정병호 역주, 『사씨남정기(택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29)』, 박이정, 2016, p.129.

36) 심혜경,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과 불교적 공간」, 『불교어문논집』제8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3, pp.48-59 참조.

37)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사찰공간의 실상과 활용양상」, 『우리말글』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p.201.

38) 대표적인 사례는 1855년 불서 판각을 위한 남호영기의 모연활동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교가사 <광대모연가>와 <장안결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한 모연활동을 통하여 여성 후원자가 상당수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에 ‘여성 향유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불교가사는 범패나 의례 과정에 연행되는 진언 등에 비해 사설이 상당히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³⁹⁾ 또한 불교의 어떤 기록물들보다 대중에게 밀착되어 유행한 갈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사찰의 대중 의식을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불교가사 사설이다. 이러한 불교가사 사설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인식 역시 유연하게 반영될 수 있었으며, 불교가사 향유자로서의 ‘여성’을 반영한 사설이 형성,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가사 사설의 형성과 유행은 결국 사찰 구성원들의 여성 인식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불교가사가 유행하던 시기인 18-19세기는 가톨릭의 유입 및 신종교의 발생 과정에서 ‘인간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제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20세기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한 여성 담론에서 변화된 인식들을

보인다.

최형우, 「남호영기의 가사 창작과 모연의도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론총』 제65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p.174.

39) 18-20세기 불교가사가 유행하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사설의 특징은 이본별로 사설 변이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즉, 작품의 사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의 사설이 다양하게 삽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34년 간행된 『조선가요집성』에 실린 <서왕가>는 이전 시기 『엄불보권문』에 실렸던 <나옹화상서왕가> 사설에 <자책가> 계열, <몽환가> 계열의 사설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다.(입기중, 2000) 이처럼 다른 계열의 사설이 자유롭게 삽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설의 연결이 느슨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 그러면 佛敎는 如何한가요 佛敎는 十界異生이 皆悉平等하여 一切異生이 皆具佛生이라고 하였습니니다. 十界異生이라함은 佛·菩薩·緣覺·聲聞·天·人·修羅·餓鬼·畜生·地獄 이리케 열가지인데 이十界異生이 다·갓다고 하였습니니다. 부러님께서는 이리케 徹底한 平等觀을 가지고 如實히 實行하시었습니니다.⁴⁰⁾

(나) 이네들은 다-佛敎를 信仰하였기 때문에 女性의 仁慈한 德性을 佛敎의 大慈大悲한 情神에 비추어서 現在의 家庭을 바로잡고 現在의 社會를 安定식히고 現在의 國家를 淨化식히려고 努力하였습니니다. 오늘날에 朝鮮 女性이 믿는 信仰처럼 아들이나 빌고 딸이나 빌고 福이나 빌고 목숨이나 빌고 來世의 極樂이나 가려고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니다. 그러닛까 今日이라도 우리 女性이 自覺하여 佛敎를 信仰하되 以上에 紹介한 그네들과 가치하야 그만한 人格을 이룬달껏 가트면 男女平等이니 女權擴張이니 女子解放이니 女性返逆이니하는 듯기에도 殺氣가 빠친 問題를 이리킬 必要도 업스리라고 생각합니니다.⁴¹⁾

위 두 자료를 확인하여 보면, 20세기의 불교는 소위 여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는 본래 부처의 사상은 남녀의 구분 없이 철저한 평등 논리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불법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본격적으로 사찰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들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당시의 담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에 다가가지는 못하였지만,⁴²⁾ 전대 불교

40) 김태홍, 「불교여성관」, 『불교』제62집, 불교사, 1929, p.21.

41) 김광호, 「불교와 여성의 신앙」, 『불교』제67집, 불교사, 1930, p.28.

42) 박상란,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p.230 참조.

사찰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여성에 대한 인식들을 고려해 보면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 아래의 사설 사례와 같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별적 인식보다는 민족적 차원에서 ‘대중들의 깨달음’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一)

주인공아 잠을깨오 대각마다 도를깎어
만반쾌락 자재한데 우리들은 무삼일노
삼계고해 뺏어있어 벗어날줄 몰으나뇨

(一六)

말세되어 그러한가 어서어서 밧비깎어
선지식을 친근하며 내부터님 내가찾어
륙도중생 제도하여 자타없이 깎인뒤에⁴³⁾

위의 사설에서는 예상 청자를 ‘주인공’으로 두며, 남성, 여성 모두에 해당하는 구절로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설에서 중생들이 고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모두 이러한 고해에서 깨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에서 벗어나 사찰의 구성원 및 대중 모두를 가사의 향유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19세기 이후 보여주었던 변화된 여성 인식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전환기 불교의 여성 인식 담론의 형성 및 전개는 단순히 사회의 변화와 외부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이전 시기부터 적극

43) <용선선사권세가> 제1장, 제16장.

적으로 활동하여 왔던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가사는 불경을 통해 재생산되던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담아냈던 것이 아니라, 사찰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반영하여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18, 19세기를 거치는 가운데 사찰 구성원들의 달라진 여성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어 20세기의 여성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V. 결론

이상을 통해 본고는 불교가사에 ‘여성’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향유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반도에 전래되어 유행한 불교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성 인식을 토대로 불서를 유통하고 인식을 재생산하였다. 하지만, 조선조 사찰에서 ‘여성’은 상당히 중요한 구성원이었으며, 상당히 다양한 수행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찰은 이러한 여성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으로 부정적인 여성 인식을 강조할 수는 없었다.

불교가사는 기본적으로 선각자가 남성 청자에게 설법을 건네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불교가사 사설은 부정적인 여성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 <회심곡> 사설을 중심으로 변화된 여성 인식의 형상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남성과 대등한 위치로 표현되는 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불교가사 사설을 형성, 향유한 사찰 구성원들 역시 조선 후기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던 ‘여성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조선

후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이것이 가사 사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며, 20세기에 주로 대두된 ‘여성관’에 대한 담론, 문화 활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조선 후기 여성들의 역량 표출과 사회적인 지위의 변화는 다양한 문학 갈래를 통하여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개개별의 문학 갈래에 국한되어 그것과 사회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본 논의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차후 이와 관련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문화 활동’에 주목하고, 여러 문학 갈래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여성 인식’을 현재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다 복합적으로 ‘여성’이 문학 및 문화의 전개와 발전과 어떤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강명관,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제26집(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pp.99-125.

강희정, 「조선 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제41집,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2002, pp.269-297.

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사찰공간의 실상과 활용양상」, 『우리말글』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 pp.191-212.

구자상, 「불교의 인간론에서 본 석존의 여성관」, 『정토학연구』제7집, 한국정토학회, 2004, pp.201-233.

김광호, 「불교와 여성의 신앙」, 『불교』제67집, 불교사, 1930, pp.23-28.

김운학 역, 『숫타니파아타』, 범우사, 1980.

김태흡, 「불교여성관」, 『불교』제62집, 불교사, 1929, pp.20-26.

김한상,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으로서의 태어남과 업」, 『불교학연구』제53집, 불교학연구회, 2017, pp.225-250.

박상란, 「근대전환기 불교잡지의 여성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1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pp.207-238.

심혜경,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과 불교적 공간」, 『불교어문논집』제8집, 한국 불교어문학회, 2003, pp.47-67.

안상희,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불교페미니즘 연구」, 위덕대 불교대학원 석사논문, 2012, pp.1-67.

안옥선, 「초기 불교와 페미니즘 윤리에 나타난 자아의 특징」, 『철학』제53집, 한국철학회, 1997, pp.71-104.

_____, 「“불교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 왜 필요한가?」, 『동서 비교문학저널』제6집,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02, pp.115-130.

옥복연, 「한국 불교 조계종단 중법의 성차별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3, pp.1-336.

_____,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한국여성학』제31집(1), 한국여성학회, 2015, pp.95-121.

_____, 「붓다의 십대 재가여성제자에 대한 불교여성주의적 분석」, 『한국불교학』제74집, (사)한국불교학회, 2015, pp.319-348.

- 윤재석, 「중국고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내지위」, 『동양사학연구』제96집, 동양사학회, 2006, pp.27-64.
- 윤종갑, 「불교에서의 평등과 차별」, 『동아시아불교문화』제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pp.179-211.
- 이수창, 「불교의 여성성불론에 대한 검토」, 『한국불교학』제48집, 한국불교학회, 2007, pp.7-34.
- 이현옥, 「불교에서 여성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 『불교어문논집』제8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3, pp.5-29.
- 임기중,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 정병호 역주, 『사씨남정기(태민국학연구원 연구총서 29)』, 박이정, 2016.
- 조승미, 「안옥선의 ‘불교와 페미니즘’ 연구 리뷰」, 『불교학 리뷰』제9집,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249-263.
- _____, 「한국의 불교와 여성 연구: 회고와 전망」, 『한국불교학』제68집, 한국불교학회, 2013, pp.707-750.
- 최형우, 「남호영기의 가사 창작과 모연의도의 문학적 형상화」, 『어문론총』제65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pp.151-178.
- _____, 「〈서왕가〉 사설의 전승과 향유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제54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pp.287-321.
- _____, 「불교가사의 연행과 사설 구성 방식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6.
- _____, 「18세기 경상지역의 『보권염불문』 간행과 수록 가사 향유의 문화적 의미」, 『열상고전연구』제6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7, pp.151-188.
- _____, 「불교가사 〈인과문〉의 사설 구성 방식과 연행문화적 의미」, 『어문학』제144집, 한국어문학회, 2019, pp.161-186.
- _____, 「20세기 초 범어사의 사회적 활동과 『권왕문』 향유의 문화적 의미」, 『어문론총』제82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9, pp.111-137.
- 하정남, 「불교와 페미니즘, 공존 가능한가」, 『불교학연구』제2집, 불교학연구회, 2001, pp.105-149.

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s of Woman Figures in Buddhist Gasa(歌辭)
and the Meanig of Culture in the Late Choseon Dynasty

Choi, Hyung-woo

During the middle ages, the position of women was nominal at best. But women did not live obediently. They engaged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and had developed self consciousness. During the Choseon dynasty, we should focus attention on the temple. Women played a critical role, and sponsored various events in Buddhist temples. Many Buddhist scriptures distributed to the public, reflected negatively on women. Temple members did not understand it, so I focused on raising the awareness of women and the features of woman figures in the Buddhist Gasa (歌辭). In the Buddhist Gasa (歌辭), a male speaker speaks to a male listener negatively about women, such as Women never attain Buddhahood. But the <Whoeshimgok> (回心曲), <Monghwanga> (夢幻歌) lyrics in the 19-20th century reflected women's consciousness equal with men. These had a positive impact on changing the status of women, and became the basis for the female discourse in the 20th century.

Key Word : female, female discourse, Buddhist Gasa (歌辭), temple members,
<Whoeshimgok>(回心曲)

최형우

소속 : 대구한의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hwchoi@dhu.ac.kr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1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